민족문화연구 “동아시아 문헌 속 개인과 개인주의” 특집의 말

민족문화연구원 동아시아 문명과 한국팀은 ‘서양’·‘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던 ‘개인’과 ‘개인주의’ 담론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동서양을 종합하는 보다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의 ‘개인’과 관련된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동아시아 자기서사 속 개인과 자아’라는 주제로, 2018년 12월에는 ‘조선 후기 개인 담론과 자술 문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으며, 2020년 9월 26일에는 근역한문학회와 공동 주최로 ‘동아시아 문헌 속 개인과 개인주의’를 탐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특집에는 올해 9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 중 서양 개인 담론의 역사적 변천을 개괄한 논문 1편과 동아시아 개인주의 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한 4편의 원고를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진태원의 「코기토, 소유적 개인주의, 예속적 주체화」는 서양 근대 철학의 개인에 관한 지배적인 서사 및 그것이 지닌 맹점과 역설, 그리고 정치적 개인에 관한 쟁점들을 ‘소유적 개인주의’라는 해석틀에 입각하여 검토한 후, 예속적 주체화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예속적 주체화라는 개념은 서양 근대 철학과 정치학에서 자율적 주체로 상정했던 개인들이 사실은 지배 관계의 재생산 메커니즘 속에서 예속적으로 생산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근대적 개인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제공했다. 이 글은 또한 말미에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규범적 이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를 개인의 정체성 구성에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관계론적 자율성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서양 근현대 개인 담론의 핵심적 논의들을 요령 있게 개괄하고 있다.

김혜경은 「동아시아에서 개인주의는 가능한가?」라는 글에서 명대 말기의 사상가 이탁오의 『명등도고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개인주의 담론의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탁오는 『명등도고록』에서 『대학』과 『중용』을 해설하면서 모든 문제의 출발과 끝을 자신에게서 구하는 ‘自’(self)의 철학을 천명하여 개체의 고유성을 인정했고, 인간의 이기심을 긍정하여 개인적 욕망을

억제・부정하는 신유가의 '존천리, 멸인욕'의 이분법에 반대했다. 또한 그는 위선적인 도학자들의 언행 불일치를 비판하며 제도적 개혁보다 지식인의 개인적 수양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체의 고유성을 인정한 이탁오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긍정하면서도, 언행 불일치의 위선과 타락을 경계하는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한 '개인주의'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미숙은 「일본 고대문학과 개인의 발견」에서 일본 헤이안 시대 일기문학과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나'(あ・われ) 및 '나도 타인도'(我も人も)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10-11세기 일본 문학에 보이는 개인의 발견과 개인주의의 맹아 양상을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가게로 일기』에서 미치쓰나의 어머니가 와카에 쓴 '나는 뭐란 말인가'(われはなになり)라는 표현을, 한 평범한 여성이 '아지랑이'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허무한 삶 속에서 '나'라는 개인을 발견하기 위해 일기를 쓰는 행위와 연관 짓는다. 또한, 『겐지 모노가타리』의 속편 여주인공 오이기미가 쓴 '나도 타인도'(我も人も)라는 표현을, '나'라는 개인의 탐구에서 '타인'과 인간에 대한 이해로 삶과 인식 지평을 넓혀가는 한 여인의 모습과 연관시켜 해석함으로써 일본 고대문학 속 개인의 발견과 개인주의 맹아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우봉은 「『荷齋日記』를 통해 본 근대 전환기 개인의 일상과 사랑」에서 荷齋 池圭植의 일기에 상세히 기록된 술집 여성 春軒과 雲樓와의 교제를 중심으로 근대 전환기를 살아갔던 한 貢人의 내밀한 사생활을 조명하고 있다. 궁궐과 관청에 각종 그릇을 납품하는 공인이었던 지규식은 『하재일기』에 두 여성과의 만남을 거의 매일 기록하면서 특히 연인인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자신의 다양한 감정과 심리까지 매우 진솔하게 적고 있다. 저자는 『하재일기』의 가장 사적이며 내밀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연인과의 교제를 소개하여 지규식이라는 한 개인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성과 관련된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근대 전환기 한 공인의 사생활에 담긴 개인의식을 포착하고 있다.

이은지는 「박종화 초기 문학에 나타난 '개인'의 존재 방식」에서 1920년대 전반기 한국문학에서 널리 내세워진 '개인'이라는 존재가, 박종화의 초기 문

학에서는 죽음의식과 '力의 예술'론을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부조되었음을 설명하고있다. 낭만적 죽음의식과 '역의 예술'론은 일견 상충 돼 보이지만, 박종화의 초기 문학 속에서 양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고립된 '개인'의 고통과 연관되어 1920년대 초에 부각된 '개인'의 실질적인 존재 방식을 되짚어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저자는 죽음의식이 '현재의 세계 속에 참다운 개인의 자리란 없다'는 점을 극단적인 수사로 강조한 것이라면, '역의 예술'론은 그러한 개인이 느끼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박종화가 개인의 고통을 창작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특집을 일독하면, '서구'·'근대' 개인주의 담론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한편, 동아시아의 고대부터 근현대 작품에 드러난 개인의식 및 개인주의 담론에 관한 시론적 논의들을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원의 '동아시아 문명과 한국팀'은 동아시아 문헌에서 확인되는 개인주의 담론 및 개인의 발견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후로도 계속 보고,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서양 개인주의 담론을 통합적으로 기술한 온전한 '개인주의의 역사'를 완성하고자 한다.